山村의여름저녁 (舊稿)

萬海

산ㅅ그림자는 집과집을덥고
풀밧에는 이슬기운이 난다
질동의를 이고 물깃는處女는
걸음々々 넘치는물에 귀밑을 적신다
올감자를 캐여지고오는 사람은
서쪽한울을 자주보면서 밧분거름을친다
살진풀에 배불은 송아지는
게울니누어서 일어나지 않는다
뚱거리만 입은 아이들은
서로다투어 나무를 안어들인다
한아씩 둘씩 돌어가는 가마귀는
어데로 가는지 알수가없다

甘露塔

趙宗玄

우리님 가시단들 참아緣土 아줄것가
가셔도 안가시냥 靈珠三十 주셧서라
큰뜻을 알어밧사와 고히모셔 옵나다

枯香樹

님게신 이끝이매 가릴무엇 잇스리만
그래도 님의遺蹟 찾아보고 십소이다
七百年 지난오늘에 더욱찾고 십소이다

(七月二十五日 松廣寺)

故金寶輪先生을吊함

韓永圭

때는七月十日이엿다
자리한七月의장마는개이지않고 烈龍山기슭으로하염없이도나리는비는 城川江水를불니여줄뿐이요 江언덕길가에늘어진버들은 잇다금바람이스쳐갈때면 맥없이추기실은층을춘다

嗚呼! 物色도쉬글흔데 人思도凄凉하다 그는때마츰金寶輪先生은入寂하셧다 朝鮮佛界에는 指導者의한분을잃엇다

嗚呼! 先生님! 이것이무슨消息입닛가 三界가火宅이요四生이虛幻임은 이제새삼스럽게알븐아니나 先生의滅度가이다지도速하실줄이야 꿈에도뜻하지안이하엿읍니다 諸佛諸祖는 因緣이다하시면滅度하시오니 先生님도이世上에因緣이다하심인가요 嗚呼先生이시여 而今에安在오시닛가 無去無來亦無住라 往來가 無碍하오나 不生不滅道理속에示勝이自在하심인줄알거니와 우리집원분누구와議論하오며甘露法水를渴望하는大衆에게 무엇을주옵닛가 오! 先生님! 다시이世上에오시지안을여십닛까 아무리愛河를떠나고若想을버렷드래도 가든길도돌아사시고 生死는되풀이하는수도잇지안읍닛가

先生님! 先生님은只今에 般若龍船에몸을실어 生死海를건너가서 커언덕寂光土에安住하시겟지요 그러나生은그것이오히려풀없지안습니다 괴로운世界에 괴로운衆生을爲하야오래오래敎化하심이 佛子의義務이요一生을犧牲하야衆을救함이 大慈悲가안입가합니다 萬若果然이라면 先生의가심이넘우速하시고 先生의敎化가넘우도적엇읍니다

오! 先生님! 先生님이마즈막으로남기고가신涅槃詩는 아직도先生의머리에새롭습니다 「圓覺堂及顚圖室 染淨無碍君知否 吾於此處入涅槃 三世佛祖皆證明」이四句偈는 先生님의平生修養을 如實히表現하신法門으로 人生의虛僞를비웃고 假面을쓴무리를餘地없이嘲笑하심인가합니다 그렷습니다先生님의말슴과같이世上의무리는 몸은것을恭篤함으로써 國爭을惹起하고 남을속이고 나만살여고한답니다 淨을좋아하고汚를실여하며 利己에汲々하고 公事에無心한것은 두말을要하자안는답니다 先生님記憶하십닛가 西으로平壤에 東으로는江陵에 北으로는元山 中央으로京城에이같이쉬일새없이敎化의길을밟으시던일이 다시금그리우시

六五頁에續